

8대 총림시대 연 새 방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팔공·쌍계·금정총림 방장에 진제·고산·지유 스님이 각각 공식 추대됐다. 이로써 조계종은 8대 총림 시대를 열게 됐다. 신임 방장으로 추대된 스님들의 이력과 그간의 활동상을 정리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선 세계·생활화 강조하는 선지식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성인 조계종 종정이기도 하다.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스님은 19세 되던 해인 1953년에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천적을 따라 동서로 10리 정도 떨어진 석우 스님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됐다. “출가는 범부(凡夫)가 위대한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라는 석우 스님의 일갈에 출가한 진제 스님은 1958년 통도사에서 해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1959년 향곡 선사 문하에 입실해 간화선 수행에 매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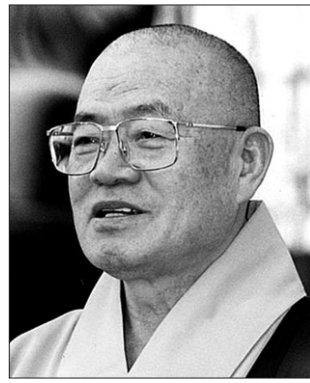
그로부터 8년인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아, 경허·해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어가게 된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간화선 생활화를 위해 지금까지 협장에서 수행자들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선학원 이사장, 중앙선원 조실(1991),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1996-2011) 등을 역임하며 후학 수좌들을 이끄는 역할도 충실히 왔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와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2011년 세계적 신학자 폴터 교수의 초청으로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교회 간화선 대법회를 열고, 2012년에는 UN 세계종교지도자 초청법회에 국제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법문을 설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올해 4월 24일 진제 스님이 간화선 중흥을 위한 법회에서 설한 입제 법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법이자 일체의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정신문화인 참선수행법을 세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윤론 통달한 한국불교 대표 강백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경윤론 삼장에 통달한 강백으로 유명하다. 특히 율사로서 스님은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한국불교 계단의 최고 어른이기도 하다.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고산 스님은 1945년 아버지의 권유로 범어사에 입산했다. 1948년 동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으며, 경윤론 삼장에 출중해 고봉 스님에게서 간맥을, 석암 스님에게서 율맥을 이어받았다.

또한 선 수행자로서의 면모도 출중하다. 1954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58안거를 성만했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교일여도리(禪教一如道理)’를 후학들에 알리고, 오로지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면서 걸림없이 살아온 이 시대 선지식이다. 실제 스님은 경남 하동에 있는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조실로 주석하면서 부산과 경기도 부천, 동영의 연화도 등을 오가면서 법회와 법문을 거르지 않아 왔다. 쌍계사를 차의 종가로 이끌어 낸 것도 스님의 원력이었다.

또한, 199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어저러워진 중단 사태를 수습했으며, 호계원장, 제2·4·5·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중단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총무원장 소임을 살 당시에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대중전 아간에서 좌정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07년 전강법회의의 법문에서는 강백으로서의 스님의 면모가 드러난다. 당시 스님은 “만약에 현재 부처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맑히기를 저 허공과 같이 맑히라 했다”며 “부처님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망상이나 모든 잠잠각을 다 떨리 여의는 것이 바로 성불한 사람의 경계”라고 강조했다.

장좌불와 수행 20년... 철저한 수행 남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으로 추대된 지유 스님은 평생을 수행 남자로서의 삶에 충실히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부산 지역 신도들에게는 ‘법 높은 스승’이시기도 하다.

지유 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인 19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불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67안거를 성만했으며 문경 봉암사,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방장 추대 전까지 범어사 조실로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를 오가며 제법제 선공을 펼쳤다.

스님은 계행에도 철저하다. 오후불식을 평생동안 지키고 있다. 늦지 않고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20년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평소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의 본질을 찾으라고 설한다. 실제 신도들에게 “단순히 불상에 참배하고 복을 받기 위해 절에 오는 것이라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며 잡념에 그달리다 보면 참다운 수행이 안된다고 “자부 세월이 흘러가니 시간을 아껴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하안거 결계 법문에서도 본질을 찾는 수행을 하라고 말했다. 스님은 “깨달음의 자리는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버리고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 물이라는 설명을 아무리 듣고 책을 보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의 참맛은 아니다. 물의 참맛은 몸이 물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맛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며 잡념에 그달리다 보면 참다운 수행이 안된다고 “자부 세월이 흘러가니 시간을 아껴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육식·음주 승단 위상 저해”

자현 스님, 교육원 교수아사리 1차 포럼서

육식은 조계종 위상을 저해하는 치명적 오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율과 윤리를 연구하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은 6월 22일 교수아사리 1차 포럼에서 자현 스님은 ‘대처육식의 문제와 승가의 위상’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일반인들은 육식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불교를 바라본다”며 “사회와 결부되는 육식과 음주는 승단의 위상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스님의 급지식 문제는 사회인식과 관련된 승단 윤리

에 있어 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자현 스님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육식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님은 “육식문제는 이번 청구에서 금지식으로 규정된만큼 조계종의 방향은 정해졌다”며 “현대의 식문화에서 육식과 채식 분별이 모호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도들에 대한 계몽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독신의 보살비구종단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2일 교수 아사리 1차 포럼을 개최했다.

로 대처승과의 변별력을 통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속원을 분명히 하는 단체 복으로서 승복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자현 스님 발표에 앞서 선불교 분야 교수아사리 회철 스님은 “대중이 원하는 이

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이며 수행자”라며 승가상을 재정의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원은 8월24일, 10월26일, 12월 28일 등 교수 아사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해 처벌하라”

불교계 교수·사회단체 규탄, 시국선언 이어져

불교계단체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대한불교청정회(회장 전준호)는 6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유를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했다”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는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식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으며, 동국대 교수 51명도

6월 28일 교내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최희)는 6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사건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무시위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승가회 등 불교계 12개 단체는 7월 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정원의 헌법유린규탄 시국법회를 개최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동국대 시국선언 교수 51명과 동국대 45기 총학생회 및 동문회는 동국대 불상 앞에서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려왔습니다

본지 제946호 31면 발인대 중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장 덕문 스님의 기술 중 '이연택 이사가 종관위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에서 추천대 이사로 임명됐다'고 동국대 총동창회가 알려왔습니다.

“미래부, 부처 내 선교회 논란 해명하라”

조계종 종평위 24일 공문 발송... 공식 대응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교교회학부 내 기독교교회의 공격적 선교 전략이 공개된 가운데 불교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교교회학부 내 기독교교회의 공격적 선교 전략이 공개된 가운데 불교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미래창조과학부 기독교교회 사업계획(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미래부의 공식입장 및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배포 범위 등을 공식 질의했다.

종평위는 “다종교 사회에서 과도한 선교나 전도활동은 종교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간 화합을 깨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는 법으로도 규정된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신종일 기자

제11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정리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1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 응모 부문(개인 혹은 단체)
 - ① 출가 부문
 - ② 재가 부문
-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① 출가 부문(개인 혹은 단체)
 - 3인(조) 이상 사승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② 재가 부문(개인 혹은 단체)
 - 3인(조) 이상 사승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
- 응모 부문(개인 혹은 단체)
 - ① 스토리텔링 : 대본 내용 등 제출 [A4용지 최소 10매 이상 ~ 최대 30매 이내]
 - ②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MENTARY(다큐+드라마) - DVD 혹은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 ③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 DVD 혹은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 ④ 오디오(작곡 등) : 3곡 이상(1곡 5분 내외)
 - ⑤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 ⑥ 상기 관련 분야
-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함.

- * 시상 대상에 대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 후보자 혹은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3년 9월 16일(월) ~ 9월 30일(월)

제출서류 : 제11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 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